

#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12년 30호

## 여름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 Contents

2012년 제30호 여름호



- 시론 3. 행복한 약사회 | 김성지(17회) 부회장  
제언 4. 크고자 하는 저는 남을 마땅히 섬겨라 | 서황석(9회)

인터뷰 5. 이제부터는 후배들의 몫이다 | 유영후(17회) 교문

- 동문회소식 8. 2012 동문회 동정  
10. 2011년도 의약학계열 학위 수여식

학교소식 12. 제 55차 (2012 회계년도) 정기총회

지부별소식 14. 신비의 섬 울릉도 | 광진구분회

- 동기회 소식 16. 25회 졸업 30주년 행사 후기 | 김춘규(25회) 총무  
18. 13회 동기회 5차여행 터키를 다녀오다 | 이종각(13회) 부회장  
20. 35회 졸업 20주년, 과거로의 여행 | 임중식(35회) 회장

약국도움이야기 22. 21세기 의약품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 박희용(23회) 편집위원

문학산책 24. 그대 그리고 나, 문(門) | 김학철(26회)  
逢舊(봉구): 옛날 아는 사람을 만나서 | 허인회(4회) 명예교수

만평 26. 서국진 동문회장의 의지 |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28. 장학기금 조성 내역  
2012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

29. 편집후기

## 중앙약대 동문회보

인쇄 : 2012년 7월 31일

발행 : 2012년 7월 31일

발행인 : 서국진 | 편집인 : 김기명

발행처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2호

전화 : 565-1700 팩스 : 564-1701

인터넷 : <http://www.caupharm.or.kr>

E-mail : [capa21@hananet.net](mailto:capa21@hananet.net)

기획·인쇄 : (주)YSP

전화 : (031)955-0150(대) 팩스 : (031)955-0159

# 행복한 약사회



김성지(17회) 부회장

봄꽃이 한꺼번에 모두 피어 새봄이 온듯하더니 훌쩍 한여름 장마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유난히 심했던 봄 가뭄이었지요. 부족해도 넘쳐도 힘드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만, 가뭄 끝의 비는 단비지만 수해가 난 지역을 보니 또 다시 걱정이 앞서곤 합니다.

몇달 혹은 몇년씩 비가 오지 않는, 기후가 좋지 않은 곳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새삼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갑자기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을 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48년, 해방된지 얼마 안되는, 아주 작고 가난한 나라에서 두터운 단복을 입고 20여일 배를 타고 힘들게 참석했던 우리 선수단들.

지금은 메머드 선수단을 이끌고 떠나는 모습을 보니 그 위풍당당한 모습에 대견하기도 하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OECD 가입국가 중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거의 최하위입니다. 행복지수는 영국의 심리학자가 2002년 발표했는데 가처분소득, 고용율, 사회 네트워크 등 여러 사항이 포함됩니다. 34개 국가 중 평균점수 6.23에도 못 미치는 4.20이라는 수치는 좀 의아한 것입니다. 커다란 격동하는 세기를 넘고 FTA 파도를 넘으며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날들.

우리들은 조급했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 지나치게 치열하게 경쟁했고, 더불어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았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머잖아 우리 약사회도 또 선거가 돌아옵니다. 슈퍼판매 등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겠지요. 좀 더 훌륭한 일꾼을 뽑아 봉사하고 배려하고, 노력하는 행복한 약사회를 만듭시다. 결국 우리들 최대의 관심사는 행복함이 아닐지요?

# 크고자 하는 **耆**는 남을 마땅히 섬겨라!



서황석(9회) 동문

수년 전 방문했던 모교 앞에 다시 선다. 세월의 무게에 눌러 허덕이던 파이퍼홀의 잔상이 평생을 떠나지 않던 내게 웅비하는 기상의 약학관은 상전벽해, 그야말로 감격에 겨웠다. 감사한 일이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던

내게, 아니 평생을 중앙대 약대와 인연으로 끊임없이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던 내게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961년 청운의 꿈을 안고 중앙대 약대에 입학은 했지만, 일찍이 부모님을 여윈 상태에서 지독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학업에 전념할 수 없던 사정이 복잡하게 어우러져 군 생활을 포함하여 근 8년만인 1968년에야 졸업을 할 수 있었으니 그리 만만한 학창생활은 분명히 아니었다.

어떻든 졸업 후 큰 변화 없이 성북동에서 약국을 개업하여 한동안 조용히 지냈으나, 당시로서는 거의 발병되지 않았던 당뇨병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어 마땅한 약도, 관리 프로그램도 없던 상황을 과감하게 탈피하고자 미국으로 향한 것이 1974년 3월 이었다. 지금도 하루에 6회 인슐린을 주사해야 하는 처지이긴 하지만, 근 40년을 투병하면서 아직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수 있는 계기가 된 전환점이었다.

이런 와중에 평생의 반려자인 집사람의 적극적인 권유로 1977년 미국 뉴욕주 약사면허를 취득하여 1982년까지 Staten Island에서 약국을 자영해 오다가 이후 지금까지 관리약사로서 현역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음은 누가 뭐래도 큰 행운이요 중앙대 약대와 맺은 인연의 끈이 바탕이 되

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약사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바탕으로 Staten Island Community Board 멤버로서, 서재필 친우회 사무총장으로, 뉴욕주 한인약사회 회장 등을 다년간 역임하며 나름대로 노력했으며, 이런 노력이 인정받아 비록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대한약학회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한 기억을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 학창시절 어려움을 이겨 내는데 이런저런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들, 미국생활에서는 약대에서 은사로 모셨던 고윤식, 장판섭 교수님들과 교류하며 동료로서 또는 조언자로서 끝없는 격려를 해주셨던 인연이며, 지금까지 미국생활을 지탱하게 해준 중앙대 약대 출신의 여러 선후배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나마 수년전 오늘의 약학관 설립을 위하여 애쓰는 학교 및 동문회 관계자들의 노고를 목도하며 그간의 고마움에 대한 마음의 빔을 조금이나마 갚는다는 의미에서 소액이지만 학교발전기금을 낼 수 있었음이 자랑스롭다. 그 결과물로서 공들여 지은 약학관을 눈앞에서 보는 감격은 누구보다 크다.

이제는 현재 위치에서 하느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 있게 살고 싶다. 어려운 학창시절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 인연의 덕으로 지금까지 순탄한 삶을 살 수 있었음도 사실이니 중앙대 약대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비록 나 자신 화려한 삶을 살아오진 않았으나 후배들에게는 폭넓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선배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 기회 닿는 대로 약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두서없는 글을 마무리한다.

# 이제부터는 후배들의 몫이다

유영후(7회) 고문

지난 6월 7일 정오, 반포의 한 조용한 중식당에서 이번으로 30호 발간을 맞게 되는 동문회보 창간을 주도했던 유영후 고문(7회, 창간 당시 13대 동문회장)과 서국진 동문회장(13회, 당시 사무총장)을 모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을 이어오고 있는 회보의 발간 의미를 되새기는 조출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김기명 편집위원장과 박희용 편집위원, 그리고 한갑현 사무총장이 자리를 같이 하여 자유방담 형식의 인터뷰가 진행되었고, 본 내용은 그 인터뷰를 풀어쓴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동문들의 단합과 결집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체의 필요성을 인지한 몇몇 뜻있는 임원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소식지나 신문 형태의 움직임이 있어왔으나 지속적인 동력을 얻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던바, 오랜 회무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13대 동문회를 이끌 수장으로 선임된 유영후 회장이 전격적으로 발의하여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산뜻한 모습의 동문회보가 2000년 7월 10일 고고의 성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 동문회보 = 기관지 + 학술지

당시 황공용 편집위원장(11회)을 중심으로 서국진(13회), 김기명(18회), 박희용(23회), 김정수(26회) 편집위원이 대양을 향해 처녀항해를 시작하는 범선을 출항시킨다는 의미를 부여해 범선의 이름을 가칭 'Who?'로 정하고 그 의미를 담을 그릇을 재단하기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특히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연 4회 이상은 발간하기가 어려운 형편에서 그나마 제한된 지면에 어떤 내용을 수록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수차례의 회합을 통해 동문회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기관지로서의 성격과 약사사회라는 전문성에 기초한 학술지로서의 성격을 어렵더라도 같이 가지고 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회보의 얼굴인 제호는 천직인 약업은 물론 서예에 일가견이 있어 서예대전 입상 등의 경력이 있는 김미자 동문(11회)의 작품으로, 지금까지 동문회보를 깨끗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약간의 변형이 있기는 했지만, 크게 시론으로 시작해서 동문들의 새로운 소식이나 동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록하는 한편, 복약지도 등 약국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에 더해 문학산책 등으로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꾸려왔습니다.

## 동문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론

먼저 시론은 회장단 중심의 현안 이슈에 대한 정론, 직필, 제언 등 동문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동문회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동문회보의 발간 이유를 각인시켜 왔습니다.

보다 많은 동문들에게 회부의 연속성과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 프로필란을 마련하여 회장단, 지부장 및 분회장, 동기회장단, 모교 교수진, 신임 보직교수 등의 소개에 더해 공직이나 제약, 병원약사위원회 등을 조감적으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동문회 조직의 기반, 전국 지부 소식**

서울 종로지부로부터 시작해 안산, 천안, 부산을 거쳐 제주지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문회 조직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전국 지부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모임의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사진과 같이 수록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부별 소식).

또한 입학기수를 기준으로 한 동기들의 최근 소식을 통해 졸업 후 현재까지 동기회의 나뉠대로의 역사를 정리하고 각 계각층에서 활동 중인 동기들의 근황을 정리하는 것(동기별 소식)에 더해 입학 20주년 성년식을 기준으로 모교 은사님들을 모시고 감사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동기들이 한 마음으로 달려오는 뜻있는 행사를 정리하는 자리(28회 입학 20주년 기념식, 4회 졸업 40주년 기념식 등)도 빠질 수 없겠지요(동기회 동정).

**연륜과 경험이 묻어나는 특별기고**

의약분업 등 약업계의 절대적인 현안에 대한 원로 선배님들의 특별기고를 위시하여 연륜과 경험이 묻어나는 회고의 내용은 지면의 품격을 높여 주었으며, 특히 동문들의 거의 절대다수가 개국약사로 봉직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가, 사회단체 지도자, 목사 혹은 선교사, 의사, 공직자, 변호사, 변리사 등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별난 동문들의 인생역정을 소개함으로써 본인들의 노력에 대한 찬사는 물론 후배들에게 다양성의 세상을 보여주는 창구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별난 동문 이야기).

**학술지로서의 면모에 부합되는 복약지도**

이어 학술지로서의 면모에 부합되게 다양한 내용의 복약지도를 포함하여 신종플루, 줄기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등 약업계의 최신 관심사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해설하는 코너를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으며(약국도움 이야기), 또한 공식적으로 등단한 전문가 수준의 동문에서부터 홀로 쓰고 즐기며 문화도로서의 꿈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순수 아마추어 수준의 동문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시와 수필로, 혹은 여행기와 산문의 형식으로 문화적인 소양을 가진 동문들의 내밀한 일기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문학산책).

**촌철살인의 기개, 한 컷의 삽화**

장간호부터 지금까지 한 호도 빠지 않고 촌철살인의 기개로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과 동문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한 컷의 삽화로 그려낸 김기명 현 편집위원장의 만평은 동문회보의 큰 자산이 아닐 수 없으며,

이 모든 내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밑그림 수준의 스케치에 실물의 온기와 색채를 불어넣는 결정적인 역할을 묵묵히 지도해 주고 있는 황공용 전임 편집위원장의 노고는 아마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잊혀졌던 얼굴과 이름을 발견하는 기쁨**

동문회보를 발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장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 한 가지는 말 그대로 각자 처해진 상황에서 빈번한 교류 없이 거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던 동문들에게 교류의 장이요 소통의 마당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며, 문득 잊혀졌던 얼굴을 우연히 넘겨본 페이지의 사진에서 발견하는 기쁨이 비록 화려한 제본이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전문잡지에 미치지 못하



지만 다음호를 기다리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지적은 동문회보의 존재가치로서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이 이번에도 들어맞습니다. 말인즉슨 당연히 국내 산간오지 어디든 연락이 닿는 동문들에게 전달되어야함은 물론 창간호부터 미주지역을 비롯한 해외거주 동문들에게 모교 소식이며, 동문들의 근황이며, 후배들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인쇄비보다 발송비가 더 비싼 현실을 기꺼이 감내하고 최근에도 200여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평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할 길이 막막했던 동문회에 회보를 보고 회비를 내기 시작한 동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며, 연회비를 낼 마땅한 기회가 없어 많지 않은 액수라 하나 막연히 동문회에 빚을 지고 있다는 죄의식에서 탈출하게 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자주 들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바탕이 되어 드디어는 동문들의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한 약학관 건립의 발전기금 기탁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끌어내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전문가가 아닌 몇몇 뜻 있는 편집위원들의 노력으로 발행되는 만큼 보다 참신하고 격조 있는 회보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태생적인 명제는 차치하고라도 창간 당시 연 4회 발간(계간)으로 시작하여 그간 약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연 3회로 줄어들더니 지

금은 가까스로 연 2회 발행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덧붙여서 아까운 회비로 쓸데없이 지면 낭비하는게 아니냐는 일부 동문들의 지적은 어떤 이유로도 존중되고 반성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을 가다듬게 됩니다. 선후배 동문들 결집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동문회를 기축으로 해서 뜻있는 후배들에 대한 지원과 모교의 발전을 지향함은 물론 약업계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전문직능인으로서의 의무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매개체 중의 하나로서 동문회보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고 하겠습니다.

동문 상호간의 연대를 더욱 튼실하게 다져주는 기본에 더해 특히 젊은 후배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동문회로 탈바꿈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전위의 역할을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유영후 고문의 한마디가 오늘의 모임이 지향해야하는 바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목적함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선배들의 노력으로 어쨌든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전적으로 후배들의 몫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3월 22일



제6차 회장단회의

- 장 소 : 약학대학 610호
- 안 건 : 1)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결산 심의의 건  
2) 2011회계년도 특별회계 결산 심의의 건  
3) "약학대학발전기금운용에관한규정" 폐지의 건  
4) 약학대학 장학기금 확충사업의 건  
5) 2012회계년도 사업계획(안)  
6) 2012회계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7) 2012회계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2월 10일



제5차 회장단회의

- 장 소 : 약학대학 610호
- 안 건 : 1. 발전기금규정 폐지의 건  
2. 동문회 장학기금 확충의 건  
3. 장학기금운영위원회 구성의 건

4월 9일



감사수감

- 장 소 : 약학대학 612호
- 안 건 : 2012회계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2월 14일



장학기금운영위원회의

- 장 소 : 식도원
- 안 건 : 1. 2012학기 1학기 장학생선발에 관한 건  
2. 장학기금 현황보고의 건  
3. 동문회 장학기금 확충의 건

4월 13일



최종이사회

- 장 소 : 삼성동 공항터미널 3층



5월 3일



윤리위원회

· 장소 : 식도원

6월 7일



장학기금운영위원회

· 장소 : 약학대학 610호

6월 28일



고문단회의

· 장소 : 약학대학 11층

6월 29일



제 7차 회장단회의

· 장소 : 약학대학 610호

- 안건 : 1. 선거관리위원 선임의 건
- 2. 선거일정에 관한 사항의 건

7월 6일



여동문회의

· 장소 : 2012년 7월 6일(금) 오전 12시

- 안건 : 1. 여동문회 발전 및 현안에 관한 논의 건
- 2. 기타토의 사항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55차 (2012 회계년도) 정기총회

동문회는 올해 3대 목표를 '참여 화합 소통'으로 정하고, 각종 기금모금운동 동참, 선후배간 유대강화, 각 급 모임 활성화, 체육대회 개최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동문회는 지난 5월 26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11층에서 제55차 (2012 회계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김성덕 의무부총장, 김대경 학장, 박진서 총동창회장을 비롯하여 천문우 서울대약대동문회장, 정준순 이화여대약대총동문회장, 조진희 이화여대약대개국동문회장, 심중보 성대약대동문회장, 김옥희 숙명여대약대동문회장, 김성순 덕성여대약대동문회장, 임득련 덕성여대약대서울동문회장, 윤현숙 동덕여대약대동문회장 등 내외빈 150여명이 참

## 수 상 자

### <총장 공로패>

- 유영후(7회)
- 방순환(10회) 새가정약국 대표
- 손의동(22회) 약학대학 교수
- 최영욱(24회) 약학대학 교수
- 윤대봉(14회) 소화약국 대표(직전 회장)

### <총동창회장 공로패>

- 유대식(22회) 동명약국 대표(직전 사무총장)
- 21회 동기회 / 이상준(21회) 동기회장
- 안산분회 / 김덕진(27회) 분회장

### <학장 공로패>

- 수원분회 / 최충식(27회) 분회장
- 김영희(28회)

### <동문회장 공로패 >

- 도봉·강북분회 김윤국(14회) 방학약국 대표
- 양천분회 조형진(28회) 샘약국 대표
- 고양분회 전금용(28회)
- 성남분회 강성희(30회) 새보람약국 대표



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올해 예산안 1억7700여만 원과 '약학대학발전기금운용에 관한 규정 폐지의 건', '중앙대 약대 장학기금 확충사업' 등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위원의 수를 기존 60명에서 180명으로 확대기로 했다. 이 날 서국진 회장은 "엄청난 난제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대대적인 쇄신과 진심어린 단결정신이 필요하다"며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년간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문장학기금확충사업에 동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중앙대 약대 김대경 학장은 축사를 통해 중앙 약대 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대학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수·연구·산업 약사 양성 특별제도' 구축과 이를 위한 장학금 구축과 인재유치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11년도 의약학계열 학위수여식

지난 2월 16일 오전 11시, 301관(중앙문화예술관) 3층 대극장에서 「2011학년도 의약학계열 합동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박용현 두산그룹 회장(결연재단 이사장), 김성덕 의무부총장, 조갑출 간호부총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성덕 의무부총장은 식사를 통해 "졸업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중앙대 의약학계열의 얼굴이며, 미래라는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참된 의약간호계의 전문인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당부한다"며, "지난해 10월 출범한 Healthcare System은 과거의 Medical Center의 개념에서 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병원 및 의약학연구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시스템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창조

적인 교육, 연구, 진료 시스템을 개척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우리의 브랜드를 상승시켜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국진 동문회장은 "처음 경험하는 사회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친구처럼 부모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줄 동문선배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문선배들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반겨줄 것이고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명문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고 오늘을 있게 한 힘의 원천"이라고 졸업생을 격려했다. 박용현 두산그룹 회장은 수상자로 선정된 의대, 약대, 간호대 학생에게 연강재단상을 수여하였다. 이날 학위를 받은 학생은 약학사 163명, 의학사 97명, 간호학사 46명 등 총 306명이다.



## 2011년도 졸업생명단

### 약학전공(84명)

변경환, 김병규, 김병선, 김성호, 박세훈, 최소연, 김 지, 김지영, 김한결, 박주호, 박진철, 서지희, 이권은, 이동은, 이은혜, 이은화, 이혜인, 주현성, 황지현, 김혜진, 이정은, 강종부, 고병성, 고철우, 권태훈, 권형석, 김도란, 김동주, 김수현, 김영석, 김원경, 김은지, 김보성, 김창용, 김한상, 나유경, 남경우, 노지은, 류민지, 박소영, 박영은, 박혜진, 배주현, 변혜영, 손유라, 신상윤, 신재연, 신정아, 신지원, 엄태인, 예동진, 유혜림, 윤나리, 이경진, 이나래, 이도연, 이동훈, 이선영, 이소영, 이예슬, 이익희, 임동규, 장아람, 장여진, 장유정, 장유진, 장재영, 전인혜, 정윤희, 정현우, 정희예, 조남현, 조상윤, 조연경, 주현진, 하현수, 허은정, 현한빛, 박인영, 서지영, 장윤희, 최성훈, 홍선희, 오소연

### 제약학전공(79명)

박상주, 김영준, 김종훈, 박유현, 신태홍, 오현일, 이상원, 최봉희, 송유린, 양민경, 추헌송, 김자경, 민지윤, 박재형, 심재선, 이선구, 정훈진, 강해남, 곽경규, 권이혁, 권태한, 김동진, 김수진, 김종민, 김지경, 김지수, 김태경, 김판동, 김형민, 남명화, 문영혜, 민창호, 박경우, 박광준, 박세진, 박소미, 박유정, 배진형, 백소영, 백지해, 백현정, 서영탁, 송영주, 송은섭, 오경진, 오일환, 유지혜, 유현준, 윤지영, 이경민, 이미지, 이수연, 이은영, 이재우, 이정현, 임주혁, 임후선, 전운선, 정성혜, 정영글, 정윤선, 정준영, 조성희, 조영수, 조혜윤, 채충만, 천성권, 최세범, 최영주, 최영진, 최이정, 최준문, 최한샘, 황해상, 이상준, 이지예, 전해인, 정수현, 하리라

### 수상자 명단

번호	구 분	전공	성명	번호	구 분	전공	성명
1	대학수석	제약학	백지해	12	본동문회	약학	박혜진
2	전공수석	약학	이혜인	13	여자동문회	약학	이소영
3	전공수석	제약학	박경우	14	안양동문회	약학	김도란
4	전공차석	약학	유혜림	15	안산동문회	약학	허은정
5	전공차석	제약학	강해남	16	영등포동문회	약학	최소연
6	약대 학생회장	제약학	이경민	17	강남지부동문회	약학	장여진
7	약대 학생회장	약학	신상윤	18	한미약품	약학	오소연
7	과대표(약)	제약학	남명화	19	일동제약	제약학	전운선
8	과대표(제)	약학	장유진	20	삼진제약	약학	변혜영
9	서울시약사회	약학	정윤희	21	건일제약	제약학	송영주
10	경기도약사회	약학	김수현	22	온누리약국체인	약학	배주현
11	동작구약사회	약학	신재연				

# 해안 절경이 뛰어나고 흙이 아닌 바위 위에 나무가 자라는 신비의 섬 울릉도

광진구 분회  
“울릉도, 독도  
방문기”

좋은 것은 쉽게 얻을 수 없다고 했던가.  
고생해야 만이 절경을 볼 수 있는 울릉도.  
힘든 만큼 멋진 여행이고 좋은 추억이 많이 남으리라.



김태용(38회) 총무

했는데 의외로 착한 학생들처럼 잘 따라 주어서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다녀왔다.

우리가 출발하기 전날에는 울릉도 독도에는 비에 파도가 4-5m정도 강풍주의보,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배가 출항하지 못했다. 혹시

못가나 하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하늘이 도와 너무 멋진 하늘에 봄 날씨에 파도 2m로 줄어 출항이 가능하게 되었다. 광중회가 하나가 되고 간절히 바라니 하늘길과 물길을 열어주었구나 하고 흐뭇하고 기쁜 마음으로 강릉항으로 갔다. 먼저 강릉을 대표하는 초당순두부로 아침을 가볍게 먹고 460t급 대형쾌속선 씨스타호를 타고 울릉도를 향해 출발하였다. 평시에도 파도가 바다쪽에서 육지방향으로 친다.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배가 많이 출렁거린다는 말은 들었지만 막상 겪고 보니 장난이 아니었다. 처음 출발때는 바이킹타는 기분이라고 좋아하더니 차츰 말이 없어지고 거의 사지로 몰고 갔다. 울릉도 저동항에 도착하니 살아남은 자는 11명, 나머지는 전멸이었다. 단합력이 강한 광중회가 멀미 하나에는 오합지졸이 되고 말았다. 살아남은 11명만 곧 바로 독도로 향했고 나머지는 성인봉 등산과 케이블카, 행남등대 해안산책로로 뿔뿔히 흩어졌다.

독도를 향한 11명은 비장한 각오로 배에 다시 올라탔다. 험한 파도를 헤치고 나니 두 개의 섬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



요즘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우기는 이 때에 독도를 한 번 가보는 것도 의미가 깊다는 생각에 독도를 가기로 결정했다. 광진구 중앙대 약대 동문회(약칭 광중회) 차달성 회장 이하 35명은 작년에 제주여행에 이어 올해는 울릉도 독도를 탐방하고 왔다. 작년에는 25명이었는데 올해는 10명이 더 늘었다. 40명에 가까운 인원이라 통솔이 힘들거라 생각



렇게 고생해서 결국 독도를 보는구나.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독도에 도착하니 독도경비대가 거수경례를 하면서 반겨 주었고 우리도 답례로 손을 흔들여주었다. 옆에는 털이 복실한 삽살개가 반겨주었다. 엄청나게 많은 하얀 갈매기들이 섬 전체에 앉아 있어서 마치 하얀 점을 찍어 놓은 듯 하였다.

뽀뽀히 흠어졌던 광중회 멤버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저녁에 다시 만나 횃집에서 의기투합을 하였다. 자연산회라 싱싱하고 맛있었다. 술이 얼큰하게 들어가니 여자 동문들이 남자동문들을 한 분씩 불러 세우면서 재롱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남자동문에게는 제주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김수련 선배님까지 불려가서 재롱을 부려야 했다. 노래방에서 흥겹게 열창을 하고 나서 대아리조트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이렇게 험난한 하루가 지나갔다.

아침에 일어나니 날이 더 화창하고 좋았다. 리조트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너무 멋있었다. 마치 해외 리조트에 놀러간 기분이었다. 리조트에서 아침 뷔페를 먹고 섬을 한 바퀴 도는 유람선을 탔다. 코끼리바위, 민물상, 삼선암 등등. 울릉도는 절벽이 많아 절경이 멋있었다. 배에서 스포츠 댄스(?)를 추는 한 여자분 덕분에 더욱 흥겨웠다. 유람선을 두시간 동안 길게 타서 약간 지루한 감이 있었는데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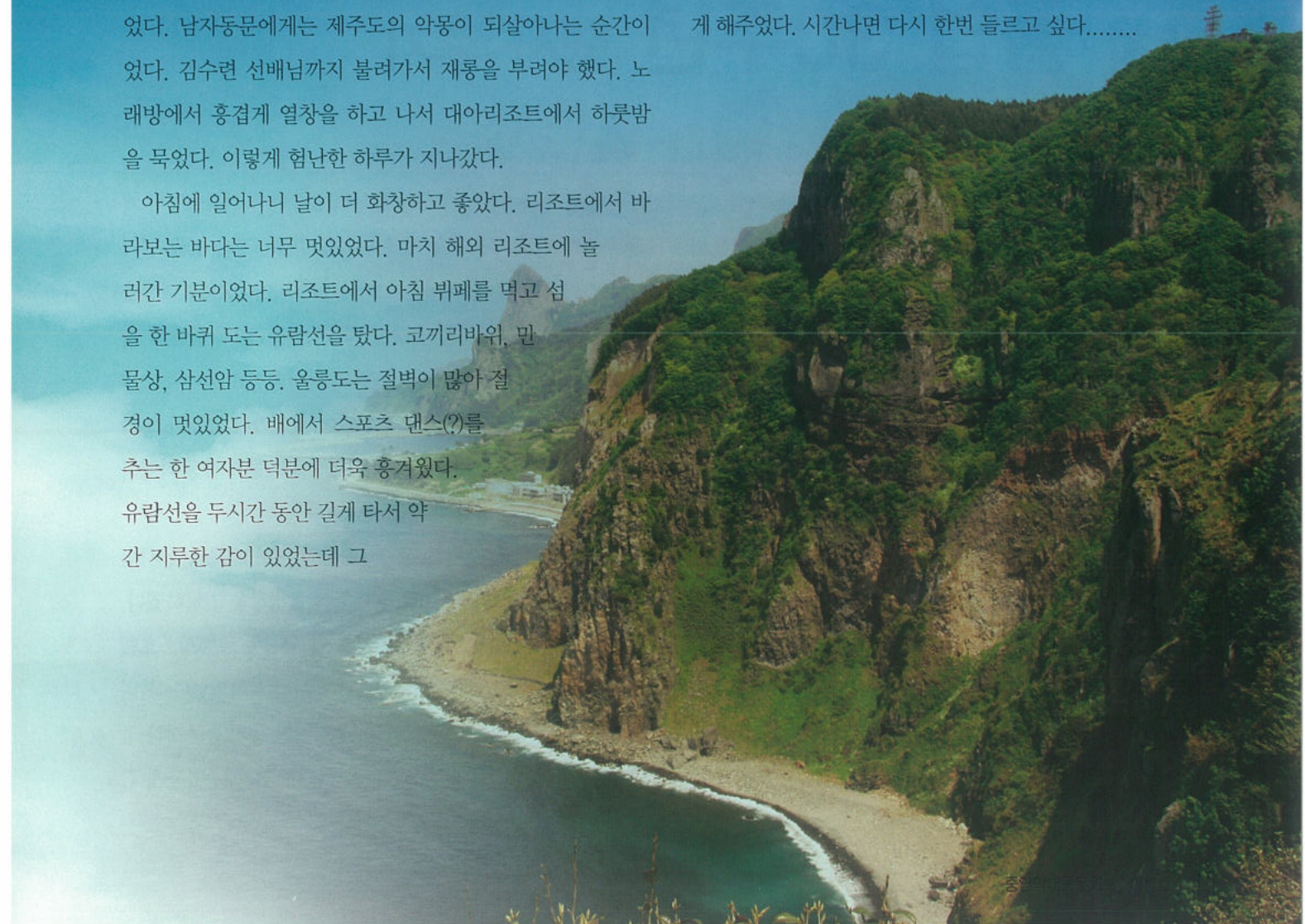
여자분 정말 고마웠다.

유람선에서 내린후 울릉도 별미인 홍합밥을 먹었다. 명이나물에 싸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다. 역시 홍합밥이구나. 잘 먹고 나서 소화도 시킬 겸 마지막 일정인 육로관광을 하였다. 배에서 본 곳을 다시 반대로 육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코스다. 육로 관광이 더 멋진 것 같았다. 도중에 모노레일을 타고 태하등대로 갔다. 눈앞에 펼쳐지는 장관이 멋있었다. 여기서 단체사진 한방. 계속 육로관광을 하여 마지막 인 나리분지에 가서 너와집 앞에서 단체사진 한방.

이렇게 짧고 고된 여행을 마치고 다시 강릉으로 가는 배를 탔다. 올때 멀미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였으나 파도가 배를 밀어주면서 가니 아무도 멀미하지 않고 무난히 강릉에 도착했다. 강릉에서 유명한 서지초기들의 깔끔하고 단정한 한정식을 먹고 모두 만족하였다. 모두 웃으며 서울로 올라왔다.

힘들었지만 즐거웠고 짧아서 아쉬운 여행이었다.

신비의 섬 울릉도..... 역시 울릉도는 쉽게 취할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고생해야 얻을 수 있는 명지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다. 시간나면 다시 한번 들르고 싶다.....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30주년기념



## 25회 졸업 30주년 행사 후기



김춘규(25회) 총무

공교롭게도 우리 동기들이 대학에 입학한 1977년은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치러진 마지막 학번과 무시험 학번이 공존하는 학번이라 아직 동문의식이 남아있는지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그동안 매년 5월 정기 등산대회가 수도권에서 있어서 수도권 동기들은 자주 만나거나 각종 애정사에서 만나거나 했지만, 지방의 동기나 수도권외곽 동기들은 이번 동기회가 아주 오래만의 만남이다.

졸업 후 3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부터 여러 동기들의 정을 이어온 전임 동기회장 이재희, 이내홍, 조석현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 글을 쓰려고 한다.

명수대를 떠난 지 30년이 흐르고 난 후 졸업 30주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동기들이 주소를 동문회에서 받아 전임회장이 가진 주소와 합쳐 주소록을 새롭게 만들어 초청장을 만들 생각 하니 앞이 막막했다. 회비를 얼마나 거두어야 하는지 예산을 얼마나 책정해야 하는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여러 동문의 협조로 예산을 책정하고 김광호 회장의 아이디어로 강남의 호텔을 물색하여 여러 호텔을 여러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하고 가장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 르네상스호텔이 가장 적절하여 장소는 그렇게 결정되었다

졸업기념선물을 준비하고 감사패를 준비하고 초청 인사를 결정하여 김광호회장이 직접 방문하여 초청장을 전달하였다. 그렇게 하여 10월15일 토요일 6시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2층 연회장에서 드디어 졸업 30주년 행사가 시작되었다. 특히 이 행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한 김창현 동기(동구제약 공장장)는 매년 동기들의 봄 등산에 차량지원을 해주었음에 감



사하고, 김영식 동기(한국알리코제약 공장장)의 선물, 김용빈 동기(보령제약 이사)의 선물, 김광호(식약청 이사관) 동기회장의 선물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후학양성에 힘쓰는 고성권, 조순현, 이민원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멀리 부산에서 올라온 백남공, 조경래, 경북 문경에서 올라온 김두수, 충남 강경에서 올라온 백광현이 무척 반갑고 여자 동기로 정효정, 임홍옥, 전경숙, 성낙순에게 특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우리 부모님처럼 되어 가시는 한덕용, 김종갑, 손동헌, 이광표, 허인회, 김창종교수님을 모시니 우리가 학창시절에 가르침을 받을 때의 모습이 눈앞을 아른거린다. 언제나 열정적이던 교수님을 뵈고 보니 그때의 강의실 분위기와 실험실의 연구모습이 눈앞을 스쳐간다. 학창시절의 여러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조석현의 사회로 행사분위기가 고조되고 언제나 우리에게 명강의를 하시던 교수님들이 이젠 학교강의가 아닌 인생사의 아름다운 말씀에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초청인사인 김명섭 전대한약사회 회장님, 서국진 약대동문회회장님, 박기배 대약사회회 부회장님, 조찬휘 전서울약사회회장님, 김대경 약대학장님이 참가하여 축하해주셨다

그리고 적으나마 우리 동기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서국진동문회장님에게 전달하였다. 졸업 30년 후가 되어 이미 중년으로 변해버린 몸을 보니 이젠 어느덧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막중한 책임이 느껴진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만난 여러 동기들이 반갑고, 부득이 참석 못한 동기들이 소식을 전하며 준비한 음식과 술 한 잔하며 학교 때의 추억과 현실에서의 고민을 이야기하니 4시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여흥시간에 방시혁이라는 재담꾼을 초청하여 웃음을 선사하려 하였으나, 오랜만의 만남이라 모두들 이야기 삼매경에 빠져있어 뜻하는 여흥을 즐길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쉬웠다.

공식행사후 이광인 동기의 주선으로 간단한 식후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 매년 5월 동기들의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약속하고 모두 헤어질라니 마음이 무거웠다. 바쁜 세상에 조금 여유로운 만남이 되었으면 좋으려 하였으나 모두들 아직은 바쁜 일로 이별을 빨리 해야 하는 현실이 아쉬웠다.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어쩔 수 없는 바쁜 세상에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야속하다고 할까. 10년 후 전국의 모든 동기들이 모두 다시 만나면 좋으려만, 그때를 기다리며 모두들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았으면 ....



## 13회 동기회 5차여행

# 터키를 다녀오다!



이종각(13회) 부회장

우리 13회 동기들은 2009년에 40주년 행사를 마친 내일 모레면 70세가 되는 친구들로, 65년 입학 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회가 새롭고 세월이 빠름을 절실히 느끼며 마음이 바빠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며 젓지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만은 대학졸업 후 약국, 제약사, 병원, 공직 등에서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온 친구들은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워 사회의 일원으로 내보내려 노력도 많이 하고 애들도 많이 쓴 친구들로, 마음을 훌훌 털고 지난 2012년 4월말에 8박 9일간 22명의 부부가 제5차 터키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40주년 행사 후 2010년에 관광했던 유럽 발칸반도의 5개국 여행때 다녀온 오스트리아의 '만년설빙' 슈트바이 정상 3,330메타에 올라 내려다 본 눈덮힌 알프스 봉우리들의 아름다운 장관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번에 다녀온 터키는 2005년부터 관광국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수십 세기에 걸쳐 이오니아, 헬레니즘, 로마, 비잔틴, 셀주크와 오만 등 수많은 문명의 이야기를 담고있는 '문명의 나라' 입니다.

북쪽에는 흑해, 서쪽에는 에게해, 남쪽으론 지중해로 아나톨리아 반도국가 터키는 인구 7,300만명, 면적 78만 평방킬로메타, GNP 11,000달러로 1년에 관광객 3,500만명이 다녀간다는 관광수입이 국가재정의 65%나 되는 부럽기도 한 나라입니다.

인천공항에서 11시간30분 비행을 하여 이스탄불에 도착하



여 곧장 비행기를 타고 수도 '앙카라' 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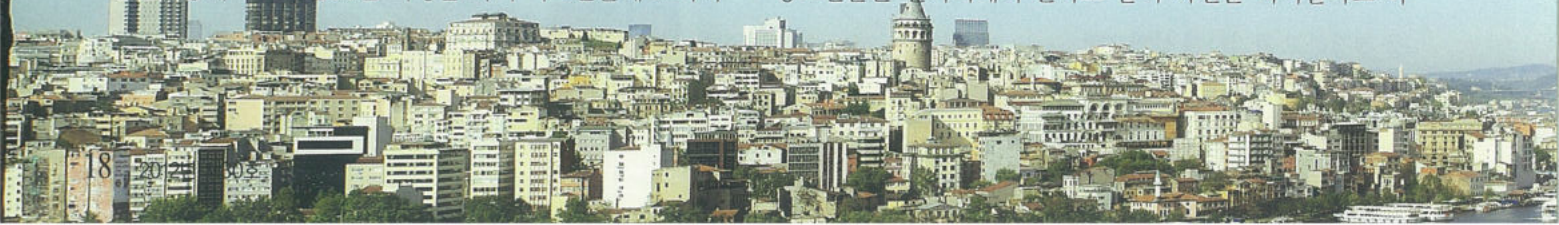
터키는 6.25전쟁시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나라로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참전용사 15,000명을 보내준 나라로 전사자 770명이나 되는 형제의 나라이며 영원히 잊지 못할 우방국임을 이번 여행을 통해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앙카라에 있는 '한국참전 기념탑'에 들러 태극기와 터키기가 펄럭이며 전쟁기념비에 새겨진 770명 전사자들의 이름을 바라보며 가슴 뭉쿨함을 느끼며 경건한 마음의 묵념을 드렸습니다.

한국참전 770명의 고귀한 전사자 영혼들이시여! 고히 잠드소서!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수년전 노무현 대통령이 터키를 방문하시여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는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표시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서 개인당 년 12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월드컵때 터키 3등, 한국 4강에 올랐던 그때부터는 터키인들은 더욱 실감있게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며 '코리아' 라고 하면 호감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주며, 청소년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도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



며 한국사람을 좋아하니 흐뭇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날은 카파도키아 지방으로 이동하여 '데린쿠우' 지하 도시를 구경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하도시는 바위를 파내어 길이 85m의 지하 8층규모로 50,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200개의 비밀 지하 거주지를 만들어 로마제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온 초기 그리스도교인, 7세기부터는 이슬람교인들의 박해에 피해 살던 곳입니다.

지하를 들어가 보니 가축우리, 환기통, 기도실, 침실, 주방, 저장고, 우물, 포도주창고, 화장실, 연락통로 등 놀라울 뿐입니다.

다음은 2,000m 되는 토로스 산맥을 넘어 4월말에도 두텁게 쌓인 아름다운 설경을 구경하며 지중해 '안탈리랴'에 도착하여 지중해의 눈이 시리도록 파란하늘, 푸른 바다, 그림같은 풍경, 강렬히 내리쬐는 햇빛을 반사하기 위해 지은 하얀 집들은 지금도 눈에 아물거립니다.

지중해에서는 유람선을 타고 은은하게 들려주는 명곡을 감상하며 맥주를 마시며 영화 '타이타닉'의 주인공 모습을 연출해가며 즐거운 1시간 30분간의 행복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다음날은 찰산의 남쪽 비탈진 곳에서 시작되는 칼슘산화물이 함유된 물의 침전물이 쌓여 천연적으로 형성된 자연경관 '백색의 천국' 이라는 자연적 1급보호지역인 '파묵칼레'에 들려 여행중 가장 맛있고 기억에 남는 어린 양갈비 구이와 포도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후 건강에 좋다는 온천수가 가서 발을 담그며 건강한 삶을 기원하였습니다.

다음날은 '에페스'의 사도요한교회, 성모마리아교회, 성모마리아가 생의 마지막을 보낸 에페스 인근의 불불산에 있는 성모마리아의 집은 1967년 교황 바오로6세가 방문한 후 기독교인들의 순례지가 된 곳입니다.

다음날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딧세이에 기술된 '트로이'에 가서 로마황제가 특별히 건축한 트로이성벽, 메가론, 아테네신전, 대극장, 성전 등을 보고 트로이 목마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감동이며 터키여행을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13회 동기여행은 13회 동기회 박동규회장, 약대총동문회 서국진회장, 전 서울시 약사회 문재빈회장, 안산시 문화원 안병식원장 등 22명으로 첫째, 부부금슬이 좋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친구들로서 둘째,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며 주위에 항상 감사하며, 셋째 행복을 스스로 찾아가며 서로를 격려하며 따뜻한 손을 잡아 줄 수 있는 진솔한 친구들입니다.

우리들은 늘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니며 멀리 있는 것도 아니며 내 삶 언저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2년마다 여행을 통해 서로 대화하고 위로하며 명예와 권세는 길어야 10년, 인생은 길어야 100년 살고, 예술은 1000년이라 하지만 우리는 삶을 같이 하는 날까지 중앙약대 명문사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의에 죽고 참에 살자'는 승당 임영신박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번 8박 9일간에 터키여행때 서로를 배려하며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 아름답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준 13회 동기 친구들 감사합니다.





# 87학번 졸업 20주년, 과거로의 여행

| 임중식(35회) 회장

그 2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 가슴은 먼 여행에서 되돌아와 고향에서 만난 어머니의 품처럼 설렘과 행복함으로 가득합니다. 그 설렘과 행복함은 20여 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금 우리를 모이게 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음속의 고향'이 있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속의 고향'은 학창시절의 동기들과 은사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이 있습니다. 모두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만 희망찬 미래가 온다고들 합니다. 바로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이는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고,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뜻이 아닐까?'라

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바로 그 시발점인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고자,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제35회 졸업생(87학번)이 2011년 11월 20일에 '졸업 20주년 행사'를 가졌습니다.

물론, 그동안 연말모임은 지속적으로 가졌었지만, 모든 동기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항상 내 머릿속에는 '졸업 20주년 행사'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이를 내 머릿속에서 밖으로 꺼내 놓은 날이 2011년 9월 2일, 신사동의 횃집에서 준비위원 10명(이성주, 김미정, 박정근, 도건호, 은형주, 이경선, 이기훈, 임중식, 최규룡, 황광우)이 모여 회의를 진행한 바 목표는 "멋진 87학번 졸업 20주년 행사를 치르자", 이 한마디에 우리 모임의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많은 희생을 한 10인의 준비위원들, 행사 장소 섭외에 도움을 준 박인철 선배(86학번), 기꺼이 2차에 합류하여 2차 행사비용 전액을 부담한 전홍렬 선배(84학번), 차기 행사 준비 답사 차 온 88학번 후배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기꺼이 회비를 내준 동기들(강병두, 강장희, 김희성, 석운진, 오세중, 오영석, 이우영, 최정원, 정혜연, 허돈행, 홍순미)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대 약대 87학번, 화이팅!!!

이제 1차 회의에 논의되었던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120여명 되는 동기들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각자 분담한 대로 파악하여 최종정리, 그리고 분담한 동기들에게 행사 참석여부 확인, 각자 분담한 내용을 우리 준비위원들은 실시간으로 카톡에서 정보 공유하여 준비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잘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다, 카톡아!!!(오프라인 회의는 총 5회 가졌었습니다.)

짧은 준비기간 입에도 불구하고 나름 알찬 행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동기들의 참여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행사에 기꺼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한덕룡교수님을 비롯한 옛날 은사님들, 김대경 학장님을 비롯한 모교 재직 교수님들, 그리고 서국진 동문회장님, 특히 동기 허돈행군의 아버님(허인회교수님)께서는 손수 집필하신 책까지 선물로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20주년 행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고, 기억하고, 하나되는 우정을 다지는 중대 약대 87학번이 되었으면 합니다.

친구들아! 정말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다들 몸 건강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서로 서로 자주 연락하고, 얼굴들 보며 살자.



# 21세기 의약품 프로바이오틱스 (probiotics)

박희용(23회) 편집위원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기능적 최소 단위를 세포(cell)라 할 때, 인체는 약 60조개 이상의 엄청난 숫자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시라. 우리 위장관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100조 이상의 균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 종류만 해도 500종이 넘는다고 한다. 물론 이 중에는 인체에 유해한 균이 있는가하면 반대로 건강유지에 조력자로 작용하는 유익한 균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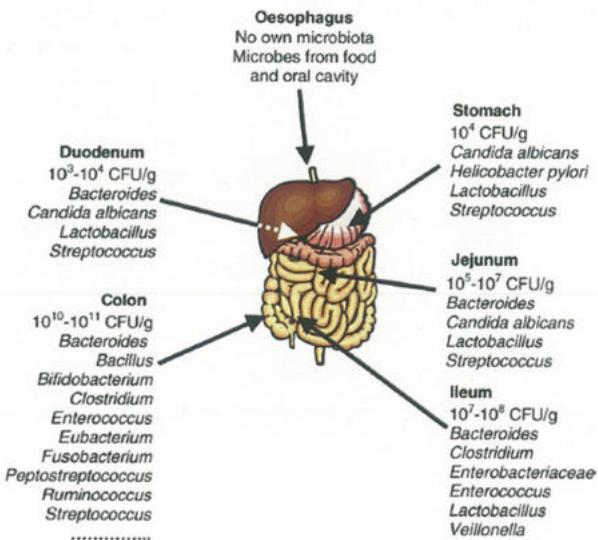


그림 1. 인체 위장관에 서식하는 정상 균총

프로바이오틱스 = 숙주 건강에 유익한 영향 미치는 생균  
여기서 “건강한 사람의 장에서 살고 있는 균들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였을 때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을 소위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라고 한다 (FAO/WHO 정의).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숙주의 장내 정상 균총(normal flora)을 개선하여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생균제, 즉 장에서 생존하면서 유해한 균을 억제하고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는 등 우리 몸에 좋은 일을 하는 유익한 균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넓게 보면 유익한 세균과 진균(good bacteria & fungi)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 프로바이오틱스의 역사

BC 500-300년경 페르시아 유목민들이 발효시킨 우유를 음용한 것에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1857년 프랑스의 파스퇴르가 포도주에 들어있는 유산균(LAB; lactic acid bacteria)을 발견함으로써 과학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포도주를 신맛이 나게 부패시키는 소위 나쁜 세균으로 인식이 되었다고 한다. 이어 1899년 티이쉴에 의해 모유 수유 중인 어린이의 장에서 비피더스균(*Bacillus bifidus*)이 발견되었고, 1900년 모로에 의해 에시도필러스균(*Bacillus acidophilus*)이 분리되었다.

이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드디어 유산균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러시아의 메치니코프에 의해 장내 유산균의 필요성과 장수의 비결이 강조되며 장내 부패균과 유익균의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불가리아인의 장수비결을 연구하던 중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는 발효유 혹은 요구르트를 다량 섭취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1908년 “발효유에 의한 불로장생설”로 노벨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 antibiotics (-, +) vs. probiotics (+,+)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안티바이오틱스와 대비되는 용어다. 안티바이오틱스(antibiotics)는 미생물

에 의해 생산된 물질로서 다른 병원성 미생물을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하여(-) 숙주에 유리한 효능(질병치료)을 발휘하는 물질(+)로 항생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등이 있다.

그와 반대로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는 사람의 장내 균총을 구성하고 있는 숙주에 좋은 영향을 주는 미생물로서 그 자체 성장이 촉진되어(+) 유익한 효력을 발휘(+하는) 유산균 등이 해당된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임상적 유용성**

프로바이오틱스의 치료학적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일 먼저 장감염증을 예방하는데, 감염성 혹은 항생제 과다사용과 관련된 설사질환이나 상부위장관 질환을 예방하며, 장점막 장벽의 안정화를 촉진시켜 준다. 또한 유당 이용률을 증가시켜 유당불내증에도 유효하다. 위궤양의 원인 균인 *H. pylori*에 대한 제균작용도 빼놓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진시키며(IgA 및  $\gamma$ -인터페론의 합성을 촉진하여 면역기능 증진),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예방하기도 하는데 특히 *Lactobacillus acidophilus*와 *L. reuteri*는 콜레스테롤을 직접 분해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음식물 알레르기에도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아토피성 질환(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 더해 암 예방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 등 그 임상적 적용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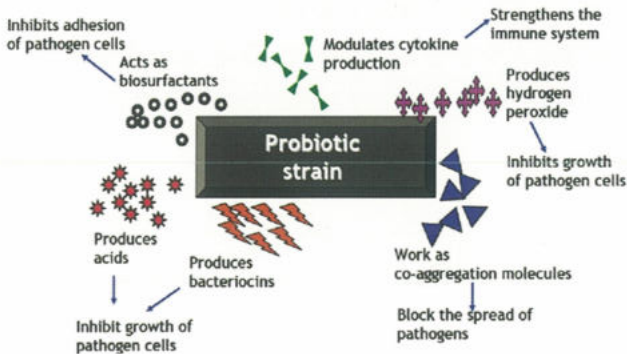


그림 2. 프로바이오틱스의 임상 응용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조건**

이런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되기 위한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다양한 균종이 확보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체 내에는 500종 이상의 균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 총수도 100조를 넘고 있다. 체내에서 유익균들은 서

로 공생관계(symbiosis)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며, 따라서 장내세균의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품에 얼마나 다양한 균이 함유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균이 중요하다. 균들이 살아있어야 장에서 번식하면서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반면 죽은 균(사균체)의 섭취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생균을 투여하더라도 담즙이나 산, 각종 효소 혹은 활성산소에 대해 안정하여 장까지 도달해야만 장 점막에 부착하여 집락을 형성함으로써 장내 환경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시판되는 제품은 대부분 동결건조된 분말형태로 되어 있으며, 체내에 들어와 수분을 흡수하여 다시 활동을 개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외에도 당연히 인체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균종(human origin)이어야 하며, 항균물질이나 유기산을 생성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인체에 대한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은 물론 안전성(비병원성, 무독성)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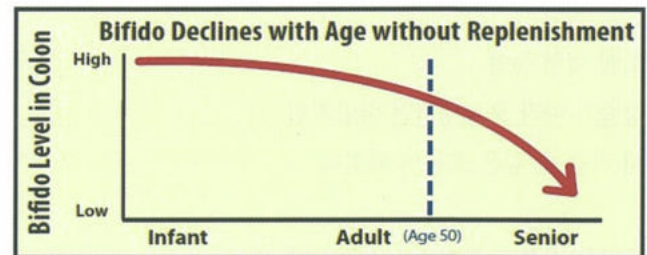


그림 3. 연령 증가에 따른 비피더스균수의 감소

**synbiotics = probiotics + prebiotics**

수없이 명멸하는 의약품 속에서도 '21세기 의약품' (the medicine of the 21st century)으로까지 지칭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체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 결과 탄생된 용어가 바로 신바이오틱스이다.

신바이오틱스(synbiotics)는 지금까지 언급된 프로바이오틱스에 "장에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선택적으로 활성화하여 숙주의 건강을 개선하는 비소화성 식품성분"이라는 의미의 프레바이오틱스(prebiotics)를 합친 것이다.

프레바이오틱스는 대부분 당류물질이며, 대표적인 것으로 올리고당, 치커리 프럭탄 등이 있는데, 밀, 양파, 바나나, 마늘, 부추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다시 말해 synbiotics는 동일 제품에 유익균인 probiotics와 그 영양소로 활용될 수 있는 prebiotics를 혼합한 진일보한 개념의 제품이다.



| 김학철(26회) 동문

## 문(門)

## 그대 그리고 나

산 위에 올라 그대 얼굴 떠올린다

오랜 세월 동안

강줄기 따라 오르내리던 바람처럼

내 가슴 속 깊은 호흡이 되었다.

유장한 강물로 흘러

큰 바다로 이끈 그대

내 심장 속 푸른 산맥이 되었다

먼 훗날

울음이 흘러져

허공 가운데 남겨져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내 방 가득 창호지 꽃무늬처럼 따뜻했던 그대!

나도 언제까지나

그대의 사람이었다

마음 가득

빛장을 지르던 어느 가을 날

어릴적 수학여행지

논산을 다녀왔다

겹쳐마 맞배지붕 반야산 관촉사(灌燭寺) 일주문(一柱門)에는  
문고리가 없다

천왕문(天王門) 어디에도 문짝 보이지 않았다

반야교(般若橋) 드나드는 단풍이 주인일 뿐

해탈문(解脫門) 머리숙인 바람이 지나갈 뿐

미륵전(彌勒殿) 사방을 둘러봐도 불상(佛像)은 보이지 않아

석등(石燈)만 관촉사 석조미륵 보살입상을 지키고 있었다

열려진 하늘

반야산(般若山) 두르고

달힌 마음

계단을 굴렀다

은진 미륵불

연화(蓮花)든 손 촛불처럼 빛나더니

드나드는 문(門)

어느새 내 문고리를 내리쳤다



章山 허인회 교수의 中英對照



허인회 (4회) 명예교수

逢舊(봉구): 옛날 아는 사람을 만나서

我梳白髮添新恨(아소백발첨신헌) 내 백발을 빗을 때마다 새로 **한**이  
 더해가고  
 君婦青蛾減舊容(군소칭아감구용) 그대 검은 눈썹 쓸어낼 때마다 옛날  
 아름다움이 아니어라  
 應被傍人怪惆悵(응피망인괴추창) 곁 사람들은 응당 우리의 한탄과  
 슬픔을 기이하다 하지만  
 少年離別老相逢(소년리별로상봉) 어린 헤어질 때 소년이고 늙어서  
 다시 만난다네

Meeting an Old Acquaintance

Each time I come my white locks, cause for new grief; each blackening of moth eyebrows, less of your beauty. Onlookers must wonder at all our sighs and exclamations young when we parted, we meet again, now old.

**한자의 뜻** 舊 옛날에 아는 사람. 梳 빗질하다. 婦 쓸다. 青蛾: 검은 미인의 눈썹을 가리킨다. 나방의 촉각(antennae of moth)에 견주어 이른 말. 傍人: 측근인, 방관자.

**해설** 815년에 지은 시이다. 아마도 옛적 살던 양양 땅을 갔을 때 소년시절에 알던 한 미녀의 아름다움아 쇠퇴하고 자신도 백발이 되어 만나서 느낀 점을 말하고 있다. 나이들어 변하여 가기에... [逢舊]란 제목의 다음과 같은 詩가 또 있다. 久別偶相逢(구별우상봉) 俱疑是夢中(구의시몽중) 卽今歡樂事(즉금환락사) 放蠶又成空(방잠우성공). 우연 상봉이 꿈인가 하였고 즐거운 일도 술잔 놓고 헤어지면 또 헛된 것이 된다고 한다.





# 서국진 동문화장의 의지!



김기명 (18회)  
편집위원장



천연물 신약 1호

# 아직도 **골관절염 통증**이 고민이십니까?

이젠 **▶ 아피톡신<sup>주</sup>**  
1mg

- ✓ 항염증 및 진통작용
- ✓ 호르몬 분비 촉진작용  
(뇌하수체, 부신피질에 작용하여 Cortisol 상승 효과)
- ✓ 아피톡신<sup>주</sup>는 이탈리아 꿀벌(Apis Mellifera)에서 추출, 정제한 순수 밀봉독(Honey Bee Venom)을 주성분으로 합니다.
- ✓ 아피톡신<sup>주</sup>는 비급여 품목이며 전문의약품입니다.

Totally **New Approach** of  
Treatment for Arthritis

- Excellent Clinical Results
- Good Safety
- Superior Tolerance

관절질환의 통증개선  
**APITOXIN<sup>Inj</sup>**  
1mg



# 발전기금을 대신해서 장학기금으로 새출발합시다!

모교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쾌척하신 자랑스런 동문님들.

성명	장학기금
서국진(13회) 동문회장	10,000,000
손동현(1회) 동문	30,000,000
홍홍만(1회) 동문	1,000,000
김명섭(5회) 동문	100,000,000
용영일(7회) 동문	5,000,000
김윤국(14회) 동문	5,000,000
장재인(17회) 동문	5,000,000
김현태(20회) 동문	3,000,000
이극선(20회) 동문	3,000,000
임경원(20회) 동문	7,200,000
정찬현(20회) 동문	3,000,000
이내홍(25회) 동문	3,000,000
이동규(25회) 동문	5,000,000
김영후(26회) 동문	6,000,000
성정희(26회) 동문	360,000
한갑현(26회) 동문	6,000,000
김정호(27회) 동문	6,000,000
민병희(27회) 동문	600,000
박영달(27회) 동문	3,000,000
최충식(27회) 동문	3,000,000
양덕숙(28회) 동문	5,000,000
이영주(28회) 동문	6,000,000
장원규(28회) 동문	3,000,000
곽필신(30회) 동문	3,000,000
김정민(41회) 동문	3,000,000
정원희(53회) 동문	2,000,000

START



우리은행 1005-501-928784 중앙약대장학재단

# 2012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

## ■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명단

장학금명	장학금액	전공	학번	학년	성명
본동문회	3,000,000	제약학	20095952	남	이병두
본동문회	3,000,000	제약학	20095455	여	김인혜
본동문회	3,000,000	약학	20095640	남	황호영
본동문회	3,000,000	제약학	20095863	여	이은정
본동문회	3,000,000	제약학	20095906	남	최준필
여동문회	1,000,000	제약학	20095656	여	권현아
안산동문회	500,000	약학	20072748	남	이도형
부산동문회	500,000	제약학	20095105	여	김효진
데일리팜	1,000,000	약학	20095339	남	김진한
나사모동문회	1,000,000	약학	20095961	여	임창정
약제반동문회	1,500,000	약학	20095856	남	김지훈
약품물리반 동문회	1,000,000	제약학	20072733	남	신동호
계			21,500,000		



## 편집후기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15년전 그가 주관하던 서울시 약사회지 편집위원으로 참가하였습니다.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가까이에서 그를 모시고 그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말았습니다.  
뛰어난 통찰력, 다양한 지식, 정보 그리고 학문의 깊이까지!  
오늘 그가 있어 행복합니다. 그가 만드는 동문회보가 빛이 납니다.  
이제 나이들어 외모까지 중후한 멋의 풀 뉴만, 조지 클루니를 닮아 갑니다.  
박희용 후배님... 전체 중앙인의 이름으로 감사 드려요...ㅎㅎ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동문회보 창간의 주역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야말로 조출하게 30호 발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제반 사정은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기로, 작은 힘이지만 보태기로 한 최초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후배들의 무모한 열정을 믿고 무조건 힘을 실어주어 창간호를 출범시킨 뒷배경인 유영후 고문이 흔쾌히 '밥'을 사셨습니다.  
박희용(23회) 편집위원

동문들을 만나러 가는 설레임에 항상 꿈을 꾸다. 사리사욕을 피하는 자는 의롭지 못하고,  
말만 떠벌리는 자는 믿음성이 없다. 믿음직한 말은 꾸밈이 없고, 꾸민 말은 믿음이 안 간다.  
한갑현(26회) 편집위원

휴가철이다. 휴식이라는 여유로운 속에 약사라는 이유만으로 짊어지었던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자  
그리고 충만하재 비록 오늘 흔들리지만 내일은 강하게 다시 설 약사직능을 위해..

조양연(32회) 편집위원



창업자 유일한 박사

"좋은 약을 만들어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  
유일한 박사의 창업정신은  
신뢰받는 유한양행을 이룬 밑거름입니다.

# 유한의 제품은 언제나 믿음을 줍니다.

우수의약품 생산을 위해 오직 한길만 걸어온 유한양행 - 베풀어주신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도록  
더욱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신용의 상징-버들표  
**유한양행**  
www.yuhan.co.kr



불편한 위장?



새로운 생약 소화제



# 생단엑스로 편안하게~

소화를 편안하게!



**UDCA(우루소데옥시콜산)  
20mg함유**

**생단엑스 주요성분**

**UDCA(우루소데옥시콜산)**

DL-카르니틴염산염



문의전화 02) 570-3881~3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2호

전화: (02) 565-1700 팩스: (02) 564-1701

E-mail: [capa21@hanafos.com](mailto:capa21@hanafos.com)

<http://www.caupharm.or.kr>